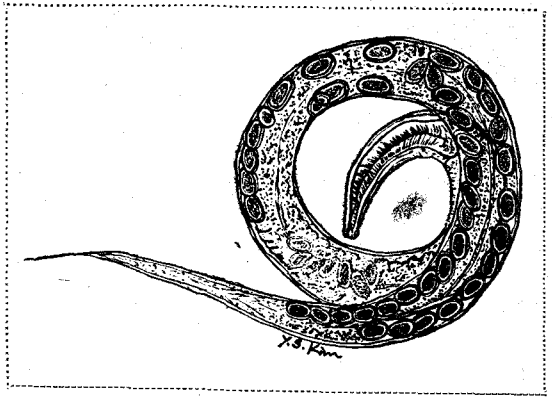


여름철 기생충병의 대책

김 영 섭
<서울 농업대학 교수>



닭맹장충(우) 10×10. 필자원도
치료예방 시험을 하고 있다.

여름철에 잘 일어나는 닭의 기생충병중에서 기생충 상호간에 서로 매개하는 기생충증과 이에 대한 관계 및 예방 치료 대책에 대하여 서로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1) 히스토모나스증(후두병)

이병은 닭에 있어서는 5~20% 정도의 감염율이나 칠면조에 있어서는 50~100%의 감염율과 100%의 사망율을 가지는 원충병이다. 닭에 있어서는 50%의 사망율을 보인다.

이병은 1~3개월의 증추에 발생이 많고 성계에는 비교적 발생이 적은것이나 요즈음 집단양계장 육계(종계)군에서 산발적으로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병은 닭맹장충과 관련되는 원충병이기 때문에 닭맹장충이 있는 양계장에서 잘 발생된다. 특히 이병의 병원체인 「히스토모나스베라그리디스」는 닭맹장충란내에 들어 있으며 이것은 수년간 생존할수있다.

이와같은 충란을 닭이 먹어서 성충으로 발육될 시기가 되면 맹장충증과 히스토모나스증을 겹쳐서 발병하게 된다. 앞으로 칠면조를 사육하고자하는 양계장에서는 이미 발병되었던 계사나 그 주위에서는 사육하는것을 피하는 것이 이로 인한 피해를 막는 길이 될것이다.

이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닭맹장충의 구충과 닭맹장충 감염이 있던 양계장 계사의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약물요법으로는 지금까지는 콕시디움 치료법에 준하였으나 최근 외국에서는 「2아미노-5니트로디아졸」로

2) 맹장충증

이병은 닭에 가장 많이 기생되는 기생충이며 히스토모나스증과 합병(合併)되어 발생된다. 또 이병은 히스토모나스증이 감염되었을 때는 닭맹장충의 발육이 지연되고 건강한 닭에 있어서 닭맹장충이 감염되었을때 보다 훨씬 적은 수의 충체만이 발육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베이커(Baker)씨는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닭맹장충은 히스토모나스증을 충란으로서 전염시켜주지만 닭맹장충 자체의 발육은 저해를 받고 있는것이다.

예방법으로는 계분이나 오물을 퇴비중에 넣어 발효시켜 충란을 사멸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밖에도 열탕을 분무하는 것이 또한 응용되고 있으며 이방법은 충란을 죽이는데 이상적인 처리이다.

약물요법으로는 최근에까지 여러가지 약물을 응용하고 있으나 이 맹장충은 약물의 1회 투여로서는 완전한 구충을 기대하지 못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회 반복하는것이 필요하다.

약물로서는 니코틴, 퀘노디아진 혼제, 피페라진제, (0.5~1.0/kg), 퀘노디아진 (0.7~1.0/kg) 등은 좋은 구충을 나타내나 이중에서도 피페라진제의 투약후 1~4시간에서 많은 맹장분이 배설되면 닭맹장충도 잘 구충이 되나 6시간 이내에 맹장분이 배설되지 않으면 구충율은 떨어져서 위에 말한바와 같이 약물을 재차 투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